

# 덧없는 것들에 왜 성질을 내고 손해를 봅니까?

##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 첫 번째 주제법문 '부처님이 오신 뜻'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4월 25-30일 법왕부에서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면'을 주제로 큰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25일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의 '부처님이 오신 뜻'을 시작으로 △26일 前 조계종 교육원장 정화 스님의 '내가 심고 있는 나무를 아느냐?' △27일 前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 스님의 '불성을 받고 정진합시다' △28일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의 '전법의 등을 밝히십시오' △29일 불교 텔레비전 회장 성우 스님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담긴 진정한 행복' △30일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취기도법'을 주제로 초청법회가 열렸다.



“사월초파일은 꽃이 만발하는 좋은 시절입니다. 2600년 동안 사람들은 부처님 생일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탄일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전후좌우로 일곱 겹을 걸어 한 손으로 하늘을,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일체고오당안지(一切皆苦 無當安之)'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홀로 높다는 뜻으로 부처가 되고(苦)에서 해매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마땅히 편안토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준동함령 개유불성(蠢動含靈 皆有佛性).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고 하지만 분명 부처가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고 이생에서는 더 어렵다고 단정 짓는다. 부처님도 8000번을 중생으로 태어나 500년 사람의 몸 받아 성불했다는데 하며 먼 미래의 일인 듯해 보였다.

봉은사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큰스님 초청법회를 열었다. 첫 법회는 암도 스님의 유쾌·상쾌·통쾌한 법문으로 시작했다. 6000년 넘은 법문 경험을 가진 '설법의 달인' 다웠다. 여유 속에서 묻어낸 재치, 힘 있는 목소리에 정확한 발음이 법문 전달에 힘을 더했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들을수록 재미있고, 같은 이야기도 또 듣고 싶어졌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 돼. 불교는 쉽고 재미있는 거야.”

법문 중 스님은 이 말을 수시로 했다. 참말로 암도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자니 웃으면서 배울 수 있는 공부라 불교라 느껴진다. 농으로 들리는 이야기 속에도 법의 요체는 가득했다. 법당을 가득 채운 불자들은 실 새 없이 박장대소했다. 그 가운데 깨달음은 성큼 다가와 있었다.

“부처님같이 되려고 한다면 8000번 태어나면 됩니다. 부처가 되는 길은 천상의 세계에서 편안하게 살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고통스러워도 사바세계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이뤄집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8000번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자연히 되는 것입니다.”

8000번. 화가 날 때 3번 이해하고, 3번 인내하고, 3번 생각하는 시간도 길다. 한데, 스님에게는 8000번 다시 태어나는 것도 별 것 아니라는 식이다.

“인생을 허투루 살지 마십시오. 고난에 부딪혔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가장 미련한 행동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을 뭐 하려고 미리 죽느냐 말입니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진입니다.”

생사일여(生死一如)를 깨친 구도자에게는 우주전체를 품는 여유와 백적간두전일보의 정진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 삼채전심... 자유·평등·평화

부처님 오신 뜻은 삼채전심(三處傳心)의 자유·평등·평화에서 비롯됐을 설명했다. 부처님이 가섭에게 3곳에서 마음을 보인 것이 곧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

“첫째,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려 보이자 아무도 그 뜻을 모르고 있었는데 가섭 혼자 보고 웃었습니다. 영화미소(拈華微笑)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꽃을 든 이유는 보이든 안보이든 있는 것은 있는 것들은 모두 '절대 자유'라는 뜻입니다.

자기[自]로 말미암아[由] 세상 모든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자주적, 자조(自助)

적이고 자립적 정신이 강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의지하고 이웃을 돕는 정신이 살아 있어야 부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남 탓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탓하는 개인·사회·국가에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 다자탑전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가섭존자와 자리를 반 나뉘 같이 앉았습니다. 다자탑전

유이고, 상호관계는 평등하면 잘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담을 줄 것도 가질 것도 없으며, 스트레스도 줄 것도 받을 것도 줄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림에서 부처님이 열반할 때입니다. 열반하고 한참 후에야 도착한 가섭이 늦게 참석하여 스승의 관 주위를 세 번 돌고 세 번 절하자, 관속으로부터 두 발을 밖으로 내밀어 보였습니다. [沙羅雙樹擲示雙趺 (사라쌍수곽시쌍부)] 생사일여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나옵니다. 열반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고 배고프면 먹는 일, 몸뚱이 하나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은 부처님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개인은 열반적정에 들어 행복에 누릴 수 있고, 전체가 행복해지면 평화가 온다. 자유와 평등에서 비롯된 평화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었다.

### 얼굴을 바꾸려면 탐진치 삼독을 버려야

“평화의 원리는 탐진치(貪瞋癡) 삼독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탐욕에 찌든 사람은 얼굴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욕심쟁이는 욕망에 휘둘리는 의지 약한 자 탐욕은 강한 의지 있어야만 없앨 수 있어

에 분반좌(多子塔前 分半座)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제자와 자리를 나누어 같이 앉은 것은 부처님을 하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온 대중들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늘 절대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누구나 출가하면 받아줬으며, 승속의 구분도 없이 모두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모두 불성이 있기에 평등한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상호관계는 절대 평등한 것이지만 분별 차별 시기 질투 모략을 여전히 일삼고 있습니다. 개인은 절대 자

암도 스님은 탐진치 삼독에 가득 찬 사람의 얼굴을 묘사했다. 능청스러운 만담이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오그라든 거지같은 얼굴. 화가 나 눈이 커지고 입이 오그라든 이의 표정. 어리석은 자의 의식에 가득 찬 모습을 보이는 스님은 중생교화를 위해 시시각각 변화했다.

수행자의 삶은 욕심을 없애는 것이다. 물욕이 없지 않으면서 속물의 근성이 빠지는 것이 곧 탈속이고 해탈이다. 탈속을 하면 모든 일에 이해가 잘 되고 합심, 화합도 덩달아 잘 된다고 강조한다.

“탐욕은 강한 의지가 있어야 없어집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욕망이라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탐진치를 중생심을 순간 버리면 불심이 됩니다. 순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이 돈오돈수입니다. 돈오돈수는 간단하게 뒤집어 중생이 부처가 되는 방법입니다. 어리석을 치 '痴'에서 '지'만 빼면 '지'라는 뜻이 나옵니다. 겉대기만 없으면 지성이 나온다는 뜻이죠. 어리석은 생각을 지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힘없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용서하고 배푸는 사람입니다.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화합과 역효과

암도 스님은 세상의 비리와 분열 속에서도 화합으로 극복해 갈 것을 강조했다.

“세상은 맞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정도 비리가 있어야 재미있습니다. 안 맞는 것과 맞는 것이 함께할 때 잘 될 수 있습니다. 선과 악도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한쪽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본 해탈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면 이해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제행무상한 것을 보고 왜 성질을 내고 손해를 봅니까?”

암도 스님은 처음도 끝도 같은 당부였다. “부처님의 비밀을 알고 보면 참말로 재미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복을 많이 받아 행복하게 멋지게 잘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리=이상연 기자

### 암도 스님은...

1938년 전북 고창 출생. 1955년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백양사에서 덕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4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4년 백양사 등에서 수선안거를 시작한 이래 제방선원에서 수행 정진했다. 백양사 주지, 총무원 교무부장·총무부장, 포교원장, 교육원장, 중앙승가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위원으로 담양 마하무량사 회주로 주석하고 있다.

# 법 대한 불 교 법 성 종

- 종 정 장허 덕암
- 총 무 원 장 능허 혜운
- 교 육 원 장 설허 만원
- 포 교 원 장 상허 재령
- 총무원부원장 도원
- 중앙총회부원장 설봉 성인
- 포 교 부 장 보현 조보현
- 재 무 부 장 옥천 류옥순
- 총 무 부 장 백봉 성관

- 원 로 원 장 춘광 법주
- 중 앙 총 회 의 장 일허 혜승
- 문 화 원 장 락허 혜운
- 규 정 원 장 조허 혜운
- 교 육 원 부 원 장 법정
- 포 교 원 부 원 장 보안 현철
- 교 육 부 장 일초
- 문 화 부 장 문순재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 대한불교 법성종 총무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1-14 TEL 02)747-2202, 02)762-2459